우리는 어떻게 '戒門'을 수행하는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시문(施門)에 이어 계문(戒門)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본문에서 밝혀 놓는다. 계는 수행을 시작하는 출발이지만 결국 어떻게 윤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불교 최고의 윤리라 할 수 있는 ①'죽이지 말라(不殺生)'에서부터 ②'도적질 하지 말라(不偸盜)' ③'간음하지 말라(不邪婬)' ④'이간질 하지 말라(不兩語)' ⑤'욕설하지 말라(不惡口)' ⑥'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⑦'꼬이거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不綺語)' ⑧'탐욕스런 생각을 하지 말라' ⑨'시기, 질투, 분노하지 말라' ⑩'그릇된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의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이른바 십악(十惡)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실천행의 기본 자세가 이 열 가지 악을 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사회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나타낸 말인 반면 출가 수행자가 처신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도 말해 놓았다.

만약 출가수도자일 경우 우선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해 시끄러운 곳을 떠나 고요한 곳에 처하여 욕심을 줄이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습관을 길러 금욕(禁慾) 고행 등을 익혀야 한다. 아주 가벼운 죄를 짓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내고 뉘우쳐 고치며, 여래가 제정한 금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남의 비방을 받지 않도

"그름을 막고 악을 그친다"

戒의 의미… 실천 강조 '律'

록 몸가짐을 잘 단속해서 중생들이 함부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戒)는 원래 범어 'sila(尸羅)'를 번역한 말이다. 본래 부처님 재세 시 외도들의 비행(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수행생활의 규범이었다. 자율적으로 좋은 행동의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방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계의 의미를 예로부터 "그름을 막고 악을 그친다(防非止惡)"는 뜻으로 설명해 왔다. 계의 조목은 중계(重戒)로부터 경계(輕戒)에까지 그 수를 늘려가면서 제정되었다. 오계, 십계, 구족계인 비구니가 수지하는 250계, 348계 등이 있다.

그런데 계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계에 '율(律:vinaya)'을 붙여 계와 율의 복합어인 계율(戒律)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계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라면 율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타율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율이라는 용어 자체는 수행자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교단 통제를 위한 규범을 준수하는 의무가 동시에 갖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계율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와 남을 위한 가장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계율은 일반적으로 소승계와 대승계로 구분이 되지만 기본계율은 오계가 근본이 된다. 소승계는 오계를 중심으로 팔계, 십계 그리고 구족계라 불리는 출가승이 수지하는 비구계와 비구니계 등의 금계(禁戒)로 되어 있는데 대승계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모델인 보살이 등장하여 이타행을 실천하는 점에 맞추어 계의 정신을 이타원력 쪽으로 두어 보살계가 나오게 되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초기에는 〈반야경〉에 의거한 10선계(十善戒)가 강조됐으며, 중기에는 〈해심밀경〉에 의거한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내세운 새로운 계율사상이 등장하였다. 섭율의계(攝律儀戒)와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의 세 가지 정계를 실천하는 것이 대승보살도라 하였다. 섭율의계는 율의를 지킴으로서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섭선법계는 금계(禁戒)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행을 닦아 이타행을 성취하는 것이며, 섭중생계는 중생을 보살로 살게 하여 성불을 기약하도록 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유가론〉이나 〈보살지지경〉, 〈보살선계경〉 등의 유가계(瑜伽戒)를 설한 경전에서는 소승계를 율의계로 받아들여 보살계 안에 수용·정착시키고 있다. 〈범망경〉과 〈보살영락경〉 등에 설해진 계를 범망계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보살계 수계의식이나 포살의식이 주로 〈범망경〉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탐욕의 불길 끄는 건 베푸는 마음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㉖ 보살이 보이는 자비심

菩薩悲心遍一切處。於彼乞者特生憐愍。菩薩悲心見乞者和　悅色。使彼乞者生必得之想。乞者見菩薩　色和悅之時。æ生決定必得之想。菩薩見乞者時。語言。汝來欲須何等隨意而取。安慰之言。善來賢者莫生恐怖。我當為汝作依止處。如是種種安慰乞者。常以愛語使彼乞者心得ㄴ　。種種財寶隨意而與。諸乞求者貪火熾盛。菩薩常以施乳滅貪求火。若能如是種種施者。名為生人。若不如是名為死人。(보살비심변일체처。어피걸자특생연민。보살비심견걸자화안열색。사피걸자생필득지상。걸자견보살안색화열지시。즉생결정필득지상。보살견걸자시。어언。여래욕수하등수의이취。안위지언。선래현자막생공포。아당위여작의지처。여시종종안위걸자。상이애어사피걸자심득청량。종종재보수의이여。제걸구자탐화치성。보살상이시유멸탐구화。약능여시종종시자。명위생인。약불여시명위사인。)

번역

보살의 자비심은 일체의 곳에 두루 미치나니, 구걸하는 이에게 특별히 연민을 일으킵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구걸하는 이를 온화하고 기쁜 얼굴색으로 보며, 구걸하는 이로 하여금 반드시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온화하고 기쁜 얼굴색을 봤을 때, 곧 결정코 반드시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만났을 때 말하기를, "그대가 와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지소서" 하며, 안심시키고 위로하기를, "어서 오세요. 어지신 이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의지처가 되리다"하며,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구걸하는 이를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항상 사랑스런 말로써 그 구걸하는 이가 마음에 청량함을 얻도록 하며, 가지가지 재물과 보배를 뜻에 따라 베풉니다. 모든 구걸하는 이의 탐욕의 불길이 치성할지라도 보살은 항상 베풀고 먹임으로써 탐욕으로 구하는 불길을 소멸시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능히 가지가지로 베푸는 이라면, 사람을 살린다고 부르나니,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해설

보살도를 배움에 있어 누구나 최상승의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최상승의 보살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높은 곳에 이르려는 이가 궁극적 목표로 눈앞의 언덕만을 보고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은 눈앞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저 고준한 곳이어야만 한다. 제바라보살은 그런 의미에서 〈대장부론〉을 통해 최상승의 보살도를 제시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욕심을 떠난 이가 될 수 있을까? 욕심을 떠난 이는 해탈한 이다. 해탈한 이는 진정 사내대장부다. 사내대장부는 삼계(三界)를 벗어난 대도사(大導師)다. 도사(導師)는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탐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제바라보살은 말한다. 그렇다면, 탐욕의 불길에 휩싸인 이가 구걸하는 타인일까?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일컫는 것이리라. 따라서 그 구걸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언제나 탐욕의 불길에 휩싸인 채 갈급하게 구걸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는 스스로 그 탐욕의 불길을 끌 수 있는 보살이기도 하다. 그 탐욕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길은 베푸는 것뿐임을 제바라보살은 알려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른불교 바른신앙

사자암 입구에는 바른불교, 바른신앙이 제법 큰 글자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주지로 온지 얼마 안되어 석공을 시켜 새긴 것이다. 사자암에 얼마 머물지는 모를 일이나 머무는 동안 바른불교, 바른신앙의 파수꾼이 되고 싶었다. 방편을 앞세워 눈높이를 구실삼아 신앙을 돈으로 흥정하는 부끄러운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낮과 밤을 오픈하여 쥔 주먹을 펴서 보이는 것처럼 말끔하고 개운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싶었다. 생일불공, 대학입시, 합격기도 등은 사자암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했고 49재 경우 쌀 한 말이나 두 말 정도로 신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나갔다.

목이 타는 갈증에는 스스로 물을 마셔야 하고 오줌이 마려우면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하는 평범한 논리로 자기 불공은 자기 스스로 하도록 했다. 하루는 김제에 사는 어느 노보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사업이 잘돼 다음달 시골 어머니의 집을 새로 지어주고 싶은데 길일(吉日)을 묻는 전화였다. 초닷새나 이레 중 택일해주면 아들이 내려오겠다는 설명이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초닷새도 좋고 이렛날도 좋습니다"고 답변했다. 한달이 지나 김제의 보살이 또 전화했다.

지난번 스님이 정해준 날짜에 아들이 바쁜 일이 생겨 다음 달 중순쯤으로 집 짓는 길일을 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역시 잠시 뜸을 들인 후, 중순은 모두가 길일이라서 열하루에서 스무날까지 어느 날에도 집 짓는 택일로 매우 좋다고 말하였다.

본래 동·서·남·북은 없는 것이다. 발길 닿는 곳이 동·서·남·북의 중앙이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리면 날마다 좋은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신도들과 연등만들 때 30대 후반의 여인이 찾아왔다. 수줍음이 많은지 요사채에 들어오질 않고 밖에서 잠시 신앙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종각 밑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어린 사내아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그들 부부에 있어 외아들인 6살 아이가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하며 잠이 깨어서도 귀신이 보인다며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가끔씩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병원에도 다녀오고 무당집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귀신 쫓는 굿까지 하였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될 기미가 없자 입소문을 통해 사자암 주지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들 부부와 아이를 법당 안으로 안내했다. 장삼에 가사까지 걸친 후 6살 사내아이를 법당의 중앙에 편하게 앉게 하고, 엄마와 아빠를 아이의 좌와 우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게 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장차 사회에 있어 빛이 되고 나라에 있어 대들보가 될 훌륭한 큰 인물이 될 관상을 타고난 아이입니다. 매우 보기 드문 아이라서 승려인 제가 아이를 향해 3배를 올릴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에게도 존경의 의미로 3배를 올립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놀라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3배, 부모에게 3배, 여섯 번의 큰 절을 마친 후 나직한 음성으로 부모에게 말하였다. "두 분도 일어나 큰 인물이 될 아이에게 큰 절로 3배를 하시지요."

방편으로 신앙 흥정 행위는 근절돼야

갈증에는 물을 마시듯 불공도 스스로

사자암을 떠나며 아이도 그의 부모도 웃고 있었다. 믿음과 용기, 희망으로 귀신 따위는 이미 사라진, 꿈이 부풀어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또 하루는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 진돗개가 요란스레 짖어대 법당의 뜰로 나가자 법당 안에서 누군가가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사연인즉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생리할 무렵이면 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것. 상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에도 두어 차례 다녀왔다. 하여, 나는 아버지와 딸을 작은 식당으로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물론 아버지가 법당에 다녀간 사실도, 딸의 손버릇도 모른 체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키 크고 예쁜 딸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우 보기 드믄 귀인이 될 관상입니다. 친구를 두급 이상으로 가려서 사귀되 꿈과 희망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품격 높은 귀인(貴人)의 삶을 누릴 관상입니다."

딸은 현재 대학원에서 희망을 키워 가고 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자암 신도가 되어 바른불교, 바른신앙을 배우며 실천 하고 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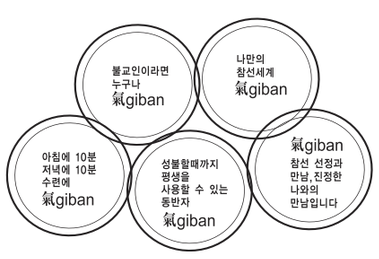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